논어 3편 팔일 18장 · 쓰기 연습

子曰：「事君盡禮，人以爲諂也。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 曰 事 君 盡 禮 人 以 爲 諂 也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